

비만 여성의 기성복 바지 착용실태 및 선호 디자인

이진숙[†] · 이정란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The Actual Wearing Conditions and Preferred Design of Ready-made Pants for Obese Women

Jinsuk Lee[†] · Jeongran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09년 11월 2일), 수정일(1차 : 2009년 12월 9일, 완료일 : 2009년 12월 28일), 게재확정일(2010년 1월 13일)

Abstract

This study details the actual wearing conditions and favored design of ready-made pants for obese women, particularly for those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The actual problems that customers feel and the preferred design of pant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survey and from the standpoint of consumers. The finding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The actual wearing conditions in the survey, 80.5% like wearing pants. The main reason to prefer pants is that pants are more convenient for social or professional work activities. The main reason to avoid wearing pants is that the pants (in general) do not mask an obese body shape. The most favored was Denim/Elastic and the second most favored was Cotton/Elastic from the survey. On average, elastic materials are preferred over non-elastic materials. The reason was the comfort in wearing and convenience in social or professional activities that could mask obesity. In terms of the style, the most favored was blue jeans and the second favored was semi-formal. A straight-silhouette is the most favored as it was able to help mask obesity. The most favored position for the waistline is 4 cm lower than the natural waistline. The most favored pant length is where the pants slightly touch the floor when they stand with shoes on. For obese women the pants development that covers the weak points of the body shape giving, which is comfortable and active are desired.

Key words: Obese women, Ready-made clothes, Pants, Wearing condition, Preferred design; 비만 여성, 기성복, 바지, 착용실태, 선호 디자인

I. 서 론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날로 증가하는 비만 인구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 비만 예방 종합대책”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9세 이상 성인 중 31.7%가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의 비만으로 분류되어 지난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당시 26%이던 국내 성인 비만율이 10년도 안 돼 5% 이상 증가한데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비만’ 뚱보”, 2009). 이 처럼 증가하는 비만 인구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류학 분야에서도 1990년대 이후부터 비만 여성을 위한 의복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진희, 최혜선, 1998; 하희정, 2001).

[†]Corresponding author

E-mail: na-jinsuk@hanmail.net

본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기술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S2-2009-000-0082-1).

첨단과학 및 인터넷에 의해 소비자들의 개인적 취향 및 소비패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날씬한 몸매를 추구하는 추세는 기성복 치수에 있어서 피트한 의복이 주류를 이루고, 확실히적으로 보인다. 이에 비만한 체형의 여성들은 기성복 브랜드에서 적합한 사이즈를 찾기가 더욱 힘들어진 실정이다. 특히, 비만 여성에 있어 다른 품목에 비해 맞춤새가 민감한 바지는 구입시 어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여성의 바지 구입시 기준이 되는 신체부위는 엉덩이둘레나 허리둘레이며, 기성복 구입시 78% 이상이 수선을 경험하였다(이진희, 2002). 특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밑위길이, 허벅지둘레 등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며(최영순, 2000), 맞춤새가 부적합하여 구매를 포기하거나, 수선이 어려운 부분에 맞추어 구매 한 후 비교적 수선이 쉬운 허리둘레나 바지 길이를 수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아, 천종숙, 2004).

최근 유행인 인체에 밀착되는 실루엣 바지의 경우 비만 체형은 착용감과 치수 적합성 등의 만족도가 더 떨어지기 쉬우며, 신체부위를 감춰줄 수 있도록 디자인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한 시각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비만 체형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피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바지 패턴설계를 위해서는 정확한 신체치수를 반영해야 하므로 입체적인 3차원 인체치수 자료를 적용한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성복의 주요 구매자인 20~30대의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기성복 바지 착용실태 및 선호 경향을 조사하여 연령별, 직종별로 느끼는 문제점과 선호하는 디자인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노년층과는 다른 젊은 비만 여성의 신체적 결점을 보완하면서 외관과 맞춤새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바지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BMI 25.0 이상의 20~30대 여성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부산, 경남 및 울산지역에서 2009년 7월 2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본 조사는 2009년 8월 한 달간 설문조사 하였다.

20~30대 비만 여성을 의도표집하여 기성복 바지 전반에 관하여 구매실태, 착용실태, 불만족 사항 및

선호 디자인을 파악하였다. 설문지는 총 16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128부 중 응답이 미흡한 46부를 제외하고 최종 8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예비조사로 20~30대 비만 여성의 기성복 바지 전반에 관하여 심층적인 견해를 수집하고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2009년 6월 5일에 실시하였다. 유행과 의복에 관심이 많은 20~30대 비만 여성 7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내용을 작성하였다. 설문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7문항, 착용실태 6문항, 구입실태 5문항, 맞춤새 4문항, 선호 디자인 9문항 등 총 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중 연령과 신체치수에 관한 문항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의 문항은 보기 중에서 선택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14.0을 이용하여 변인의 빈도를 중심으로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통계치로 전반적인 바지 구입실태를 알아보고, 교차분석으로 연령별, 직종별 바지 착용실태, 추구 이미지, 선호 맞춤새, 바지 선호 디자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신체치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0대는 응답자의 30.5%이며, 30대는 69.5%였다. 이 중 기혼자가 62.2%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가 53.7%를 차지하였다. 비만 정도는 BMI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대부분 중도비만으로 92.7%를 차지하였고, 고도비만은 7.3%였다. 직업유형은 학생과 주부를 제외한 직업종사자는 전체의 69.5%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사무·관리직 종사자(24.4%)가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인체치수를 Size Korea(2004) 3차원형상 인체치수와 비교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났다. 키, 몸무게, BMI,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비교한 결과 키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차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빈 도(n=82)	
연 령	20~29세	25(30.5%)
	30~39세	57(69.5%)
결혼유무	기 혼	51(62.2%)
	미 혼	31(37.8%)
자녀유무	있 다	44(53.7%)
	없 다	7(8.5%)
비만정도	중도비만(25.0~29.9)	76(92.7%)
	고도비만(30.0 이상)	6(7.3%)
직 업	학 생	5(6.1%)
	판매·영업직	7(8.5%)
	생산직	4(4.9%)
	사무·관리직	22(26.8%)
	자영업	5(6.1%)
	전문직	19(23.2%)
	주 부	20(24.4%)

없었으며, 둘레항목 및 BMI는 본 연구대상자가 약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바지 착용 및 구입실태

1) 바지 선호도

바지 선호도는 <표 3>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80.5%가 바지를 즐겨 착용하고, 19.5%가 스커트를 선호하

였다. 연령별로는 20, 30대 모두 바지를 선호하였다. 선행연구(임지영, 2008) 결과로 40, 50대의 중년 여성 중에서 정상형이나 수척형보다 비만형이 바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과 상관없이 비만 체형은 바지를 더 선호하는 결과로 보인다.

연령별 바지 착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림 1>과 같다. 가장 큰 이유는 활동성으로 20대는 56.6%, 30대는 63.5%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20대는 체형커버 때문(39.1%), 30대는 사회활동 및 직업 때문(15.4%)이었다. 20대는 학생과 주부를 제외한 직업 종사자는 72%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회활동이나 직업 때문에 바지 착용을 선호하는 경우는 0%로 30대와는 달리 사회활동 및 직업으로 인한 의복 착용의 제약을 별로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바지 착용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그림 2>와 같다. 연령별로 비교하면 20대는 착용시 압박감이 커서(37.5%)가 가장 큰 이유이며, 다음으로 체형커버를 못해서(25.0%), 입고 벗기 불편해서(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30대는 체형커버를 못해서(55.6%), 적합한 치수가 없어서(22.2%), 입고 벗기 불편해서(11.1%), 직업 때문(11.1%)으로 응답하였다. 30대는 20대와 다르게 의복 착용시 자신의 선호 경향과 무관하게 사회활동과 직업으로 인해 의복 착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 비만도가 높을 수록 적합한 바지 치수가 없어 선택의 여지없이 스커트를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연령별 바지 착용을 선호하지 않는 이

<표 2> 조사대상자의 인체치수비교

(단위: cm,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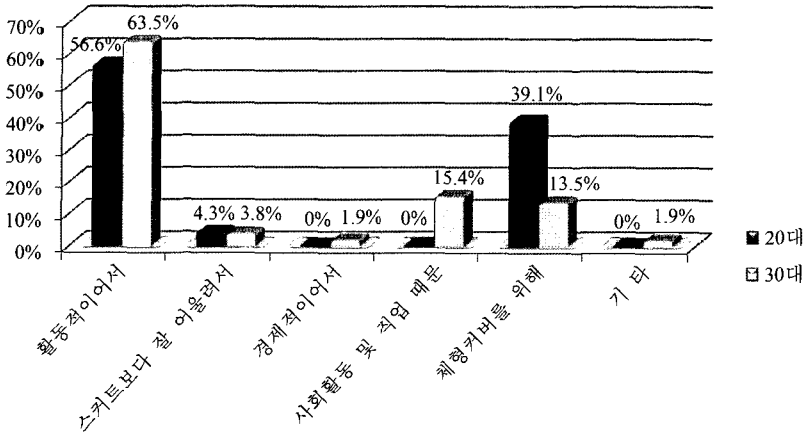
항 목	응답자의 인체치수(n=82)				Size Korea 3차원 형상 인체치수(n=119)				t 값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키	153.0	177.0	162.4	4.7	140.4	172.7	158.2	5.6	8.118***
몸무게	59.0	96.0	69.8	6.6	51.0	96.0	68.9	7.1	1.232
BMI	25.0	33.6	27.0	2.6	25.0	38.7	27.5	2.3	-1.719
가슴둘레	90.0	115.0	98.5	7.7	90.2	120.0	100.1	5.7	-0.895
허리둘레	72.0	98.0	85.3	7.4	74.2	105.5	87.6	6.1	-1.469
엉덩이둘레	90.0	116.0	100.8	7.5	92.9	118.8	101.8	4.5	-0.604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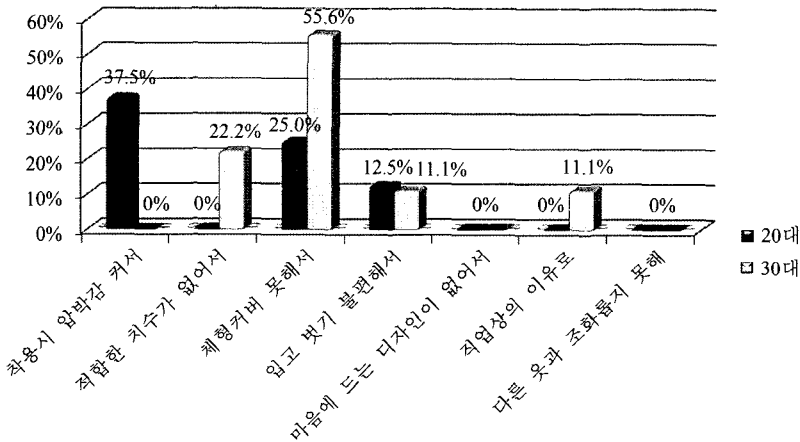
<표 3> 연령별 바지 선호도

(단위: 명(%))

선호도	20대	30대	전 체
바지 선호	17(68.0)	49(86.0)	66(80.5)
바지 선호하지 않음	8(32.0)	8(14.0)	16(19.5)
전 체	25(100.0)	57(100.0)	82(100.0)



<그림 1> 연령별 바지 선호 이유



<그림 2> 연령별 바지 선호하지 않는 이유

유의 유의값도 0.05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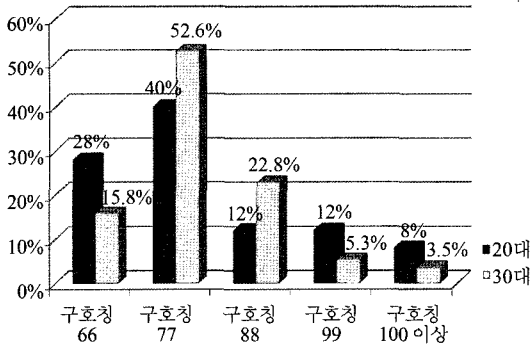
따라서 20, 30대의 젊은 비만 여성을 위해 다양한 바지 치수와 활동성이 좋고, 편안하면서 체형커버를 할 수 있는 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바지 착용치수와 이상적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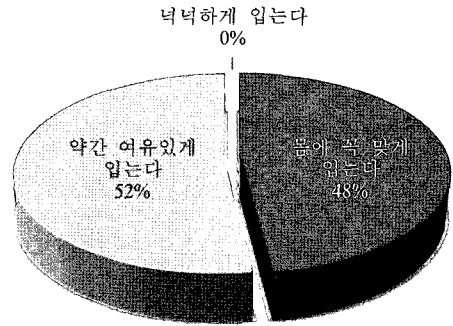
20, 30대가 실제 착용하는 바지 치수와 이상적 치수는 <그림 3>-<그림 4>와 같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착용하는 바지 치수는 구호칭 77(73-96)이 48.8%였고, 연령별로는 20, 30대 모두 구호칭 77(73-96)을 40%, 52.6%로 가장 많이 착용하였다. 다음으로 20대는 구호칭 66(70-94)을 28%, 30대는 구호칭 88(76-98)을 22.8%가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 30대 비만여성의 대부분은 구호칭 77을 가장 많이 착용하

지만 그 외 치수는 20대가 30대에 비해 작은 치수를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연령별 착용치수의 유의값도 0.05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다. 석혜정, 김인숙(2003a)의 선행연구에서 정상체형 여성의 연령별 바지 착용치수를 살펴보면, 20대는 구호칭 55(52.4%), 30대 66(45.3%), 40대 66(44.1%), 50대는 77(51.1%)을 가장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정상체형 여성보다 두 호칭 정도 큰 바지를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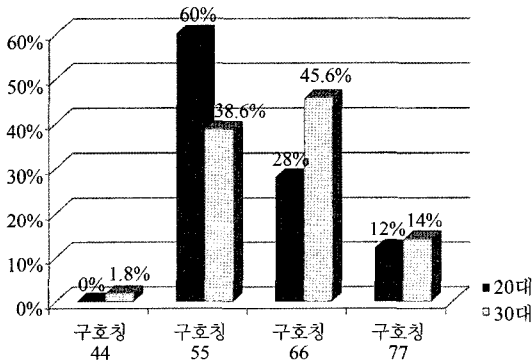
이상적 치수는 구호칭 55(67-92)가 45.2%, 66(70-94)이 40.2%, 구호칭 88(76-98)이 19.5%였다. 연령별 이상적으로 느끼는 바지 치수로 20대 60%가 구호칭 55(67-92)를 30대 45.6%가 구호칭 66(70-94)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20대는 가장 많이 착용하는 치수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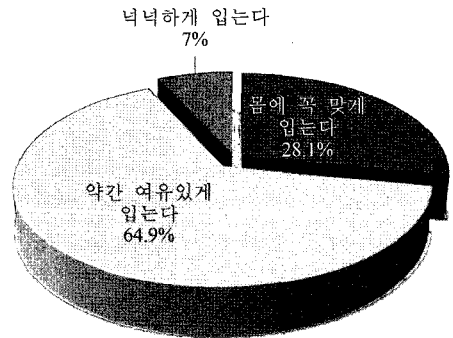
<그림 3> 연령별 바지 착용 치수



<그림 5> 20대의 바지 선호 맞춤새



<그림 4> 연령별 바지 이상적 치수



<그림 6> 30대의 바지 선호 맞춤새

다 두 호칭 작은 치수, 30대는 한 호칭 작은 치수를 이상적인 바지 치수로 나타냈다.

또한 구호칭 66, 77 착용자는 이상적 치수로 구호칭 55로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88 이상 착용하는 응답자는 구호칭 66을 이상적 치수로 응답하였다. 이는 비만도가 높은 응답자들은 무조건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고려하여 구호칭 66을 이상적 치수로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3) 바지 착용시 선호 맞춤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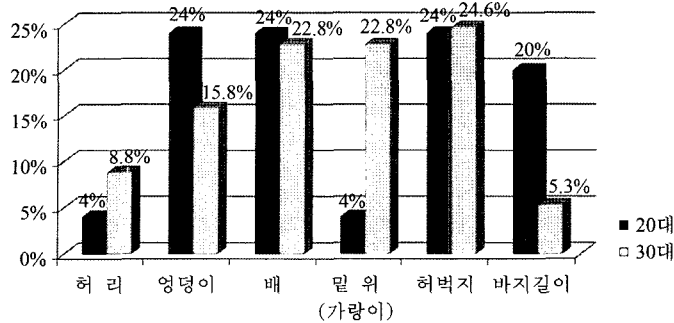
20, 30대의 바지 착용시 선호 맞춤새는 <그림 5>-<그림 6>과 같다. 연령별로 비교하면 20, 30대 모두 약간 여유있는 맞춤새를 52%, 64.9%로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몸에 딱 맞게 입는 경우가 20대는 48%, 30대는 28.1%였다. 또한 20대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넉넉하게 입는 경우도 7%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만 여성은 넉넉하게 입으면 더 뚱뚱해 보여 체형

의 결점을 보완할 수 없고, 몸에 맞게 입거나 약간의 여유가 더 날씬해 보인다고 인식하며, 피트한 의복이 유행하는 것과 상관있는 결과로 보인다. 선행연구(석혜정, 김인숙, 2003b)에서도 20대 비만 여성은 다른 연령대의 비만 여성에 비해 여유가 작은 옷을 선호하고, 특히 바지는 여유가 작은 것을 선호하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 본인 치수의 바지 착용시 맞춤새가 좋지 않은 경우는 가끔 있다 62.2%, 자주 있다 22.0%, 항상 있다 2.4%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맞춤새가 안 좋은 경우가 86.6%로 대부분이 바지 착용시 맞춤새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바지 착용시 불편한 부위

연령별 바지 착용시 불편한 부위는 <그림 7>과 같으며, 20대는 허벅지(24%), 배(24%), 엉덩이(24%)가 동일하게 불편하고, 다음으로 바지 길이(20%)였다. 30대는 허벅지(24.6%), 밑위(22.8%), 배(22.8%), 엉덩



<그림 7> 연령별 바지 착용시 불편한 부위

이(15.8%), 허리(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리둘레나 엉덩이둘레를 기준으로 바지를 선택하였을 때 허벅지부위, 밑위부위의 맞춤새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선행연구(김현아, 천중숙, 2004)로 20대 여성의 기성복 바지 맞춤새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허벅지둘레, 엉덩이둘레, 밑위부위가 불편하여 바지 구입을 포기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 기성복의 불편한 부위가 개선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임지영(2008)의 연구에서 40~50대 중년 비만 여성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아랫배둘레, 밑위부위 순으로 불편이 높았다. 이는 중년 여성의 하반신 체형이 굴곡 없는 실루엣으로 변화함에 따라 허리부위가 가장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 젊은 비만 여성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중년과 구분되어지는 젊은 비만 여성의 피트니스를 고려한 바지 패턴설계를 위해서는 허벅지둘레, 엉덩이둘레 및 밑위의 신체치수특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 외 수선을 많이 하는 부위로 바지 길이를 줄이는 경우가 59.8%로 가장 많았고, 엉덩이, 허벅지부위 옆선을 늘리는 경우가 12.2%, 허리, 배둘레를 9.8%가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김양원, 2001)에서 바지는 모든 의복 중에서 가장 맞춤새가 좋지 않은 품목이며, 바지 길이를 가장 많이 수선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수선이 쉽지 않은 엉덩이둘레나 허리둘레를 기준하여 구입하므로 바지 길이가 긴 경우가 대부분이며, 둘레보다는 수선이 용이한 바지 길이를 수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젊은 비만 체형의 특징이 삼각비만 또는 하체비만 형태이므로 엉덩이, 대퇴부위가 굵어 엉덩이, 허벅지부위 옆선을 늘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반면, 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도 15.9%였는데 이유는 수선 후 실루엣이 예쁘지 않아서였고, 아름다운 실

루엣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바지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만 체형 여성복의 그레이딩은 일률적인 편차를 적용시켜 길이도 함께 늘릴 것이 아니라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부위별 치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5) 직업별 바지 착용시 추구 이미지

직업에 따라 바지 착용시 추구하는 이미지는 <표 4>와 같다. 세련된 이미지를 원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40.2%이고, 현재보다 날씬하게 보이길 원하는 경우가 37.8%, 품위있는 이미지 11%로 나타났으며, 귀여운 이미지를 원하는 응답자는 거의 없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판매·영업직(71.4%), 전문직(68.4%) 종사자가 세련된 이미지를 원하였고, 학생(60%), 사무·관리직(59.1%), 생산직(50%), 주부(40%)가 현재보다 날씬해 보이길 원했고, 자영업 종사자 60%는 품위있는 이미지를 원하였다. 또, 직업별 추구 이미지의 유의값도 0.01 수준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직업별 추구하는 이미지가 달라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이미지의 디자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6) 바지 구입

바지 구입 별수는 1년에 4~6벌 구입(46.3%)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3벌(26.8%), 7~8벌(19.5%)의 순으로 구입하였다. 또 1벌의 평균가격은 3~5만원(36.6%), 5~10만원(35.4%), 3만원 미만(18.3%)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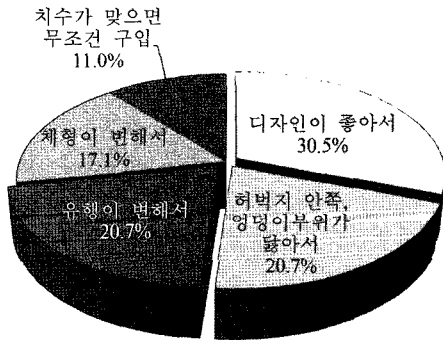
바지를 새로 구입하는 이유는 <그림 8>과 같다. 디자인이 좋아서 30.5%, 허벅지 안쪽·엉덩이부위가寬아서 20.7%, 유행이 변해서 20.7%였다. 특히, 젊은 비만 여성은 허벅지나 엉덩이부위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표 4> 직업별 바지 착용시 추구하는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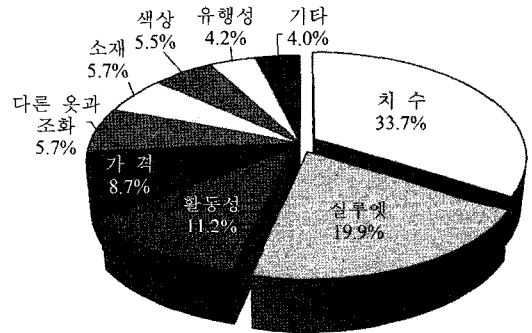
(단위: 명(%))

직업	학생	판매 영업직	생산직	사무 관리직	자영업	전문직	주부	전체
현재보다 낫게	3(60.0)	1(14.3)	2(50.0)	13(59.1)	0(0)	4(21.0)	8(40.0)	31(37.8)
세련되게	1(20.0)	5(71.4)	1(25.0)	6(27.3)	2(40.0)	13(68.4)	5(25.0)	33(40.2)
유행에 적합하게	0(0)	0(0)	0(0)	0(0)	0(0)	1(5.3)	4(20.0)	5(6.1)
품위있게	0(0)	1(14.3)	0(0)	2(9.1)	3(60.0)	1(5.3)	2(10.0)	9(11.0)
귀엽게	0(0)	0(0)	0(0)	1(4.5)	0(0)	0(0)	0(0)	1(1.2)
기타	1(20.0)	0(0)	1(25.0)	0(0)	0(0)	0(0)	1(5.0)	3(3.7)
전체	5(100.0)	7(100.0)	4(100.0)	22(100.0)	5(100.0)	19(100.0)	20(100.0)	82(100.0)
χ^2	51.088**							

**p<.01



<그림 8> 바지 재구입 이유



<그림 9> 바지 구입시 선택 기준

바지 착용시 마찰이 심해 쉽게 닳는 불편함을 겪으며, 착용시 불편한 부위와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 바지 구입시 선택 기준

바지 구입시 선택 기준은 <그림 9>과 같으며, 치수 33.7%, 실루엣 19.9%, 활동성 11.2%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에는 유명도(1.2%), 관리성(1.4%), 바느질(0.6%)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선행연구(이진희, 2001) 결과에서는 바지 구입시 가격(31.1%), 치수(22.2%), 디자인(22.2%) 순으로 중요하게 여겨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바지 구입시 과거와는 달리 요즘의 비만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적합한 치수와 활동성이 좋고, 신체적 결점을 커버해 주는 디자인이나 실루엣이면 어느 정도 고가이더라도 구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구입 장소는 인터넷 쇼핑몰이 24.4%, 상설할인매장 23.2%, 백화점 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30대 여성들이 쉽게 컴퓨터를 사용하며, 시간

과 장소에 제약 없이 쇼핑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을 선호하는데 기인한다. 하지만 김양원(2001)의 연구결과에서는 정상 체형 여대생은 백화점(44.7%), 할인점(29.1%)에서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비만 여성은 적합한 치수 구입이 쉽지 않은 백화점에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쇼핑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에서도 인터넷 쇼핑몰을 선호하는 이유로 디자인이 다양하며 구입시 마음에 안 들거나 사이즈가 잘 맞지 않더라도 부담없는 가격으로 쉽게 구입하며, 매장을 방문하면 의복 구입시 주변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인터넷 쇼핑몰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3. 바지 선호 디자인

1) 선호 소재

직업별 선호하는 바지 소재는 <표 5>와 같다. 전체적으로 판매·영업직, 자영업 종사자를 제외하고 데님/

<표 5> 직업별 바지 선호 소재

(단위: 명(%))

선호 소재 \ 직업	학 생	판매 영업직	생산직	사무 관리직	자영업	전문직	주 부	전 체
데 님	1(20.0)	0(0)	0(0)	3(13.6)	0(0)	3(15.8)	6(30.0)	13(15.9)
데님/스판	3(60.0)	1(14.3)	3(75.0)	12(54.5)	0(0)	7(36.8)	6(30.0)	32(39.0)
면 100%	0(0)	0(0)	0(0)	0(0)	0(0)	0(0)	0(0)	0(0)
면/스판	0(0)	4(57.1)	1(25.0)	6(27.3)	3(60.0)	2(10.5)	6(30.0)	22(26.8)
모직 100%	0(0)	0(0)	0(0)	0(0)	0(0)	2(10.5)	0(0)	2(2.4)
모직/스판	0(0)	2(28.6)	0(0)	0(0)	1(20.0)	3(15.8)	1(5.0)	7(8.5)
폴리에스테르/스판	0(0)	0(0)	0(0)	0(0)	1(20.0)	2(10.5)	1(5.0)	5(6.1)
기 타	1(20.0)	0(0)	0(0)	0(0)	0(0)	0(0)	0(0)	1(1.2)
전 체	5(100.0)	7(100.0)	4(100.0)	22(100.0)	5(100.0)	19(100.0)	20(100.0)	82(100.0)
χ^2	53.176*							

* $p \leq .05$

스판 혼용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다음은 면/스판 혼용으로 특히 판매·영업직, 자영업 종사자가 선호하였다. 이는 의복을 갖춰 입어야 되는 직업 종사자로 데님 소재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일반 소재보다는 스판이 혼용된 소재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선호 소재의 유의값도 0.05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다.

응답한 소재의 선호 이유는 <그림 10>과 같다. 편안함이 가장 큰 이유이고, 착용시 체형커버, 사회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숙, 서미아(2008)의 연구결과에서도 20대 여성이 의복 구입시 선호하는 바지 소재는 신축성 소재(66.9%)로 일반 소재보다 더 선호하였고, 이유는 활동시 편안함 때문(55%)에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 날씬해 보이기 때문에 선호하였다. 따라서 정상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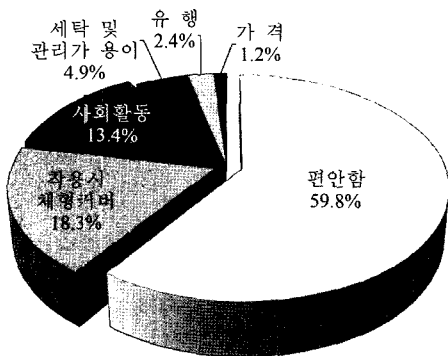
도 바지는 활동성이 더 요구되는 품목으로 소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만 체형은 정상 체형보다 동작이 불편하고, 땀이 많아 흡습성, 활동성 및 편안함이 더욱 요구되므로 소재에 있어서는 민감하고, 직업에 따라서도 선택이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도 면이나 데님에 스판이 혼용된 소재를 선호하였는데, 모직물이나 합성직물에 비해 소재가 힘이 있어 의복 착용시 체형커버를 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어서 선호하며, 스판의 혼용으로 인체에 밀착되더라도 활동성이 좋아 선호한다는 응답 내용과 일치하였다.

2) 선호 색상 및 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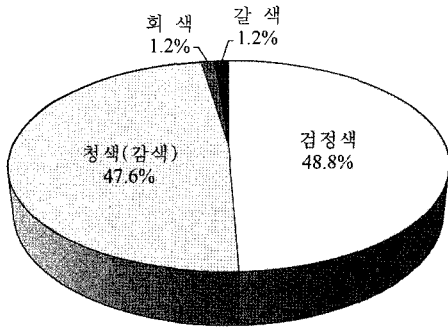
선호하는 바지 색상 및 무늬는 <그림 11>-<그림 12>와 같다. 검정색(48.8%)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는 검정색이 무난하면서도 상의와 잘 어울리고, 신체가 조금이라도 축소되어 보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90.2%가 무늬가 없는 무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결과에서 비만 여성은 어디서든 주목받길 원하지 않고, 무난해 보이기 원하는 특성이 선호 색상이나 무늬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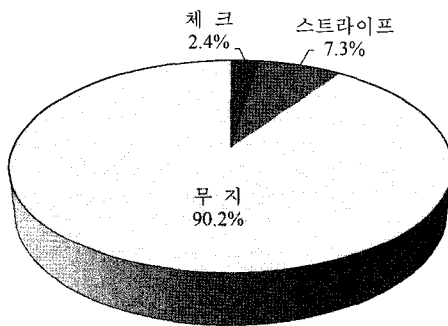
슬랙스용 소재에 대한 대학생의 선호도 조사연구(김희숙, 나미희, 2002) 결과에서도 사계절 모두 무늬가 없는 직물을 선호하였고, 색상은 봄, 가을용으로는 그레이 계열, 여름용은 블루계열의 밝은 색상, 겨울용은 블랙 및 어두운 색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상 체형의 여대생과 무늬에 관한 선호 결과



<그림 10> 소재 선호 이유



<그림 11> 선호 색상



<그림 12> 선호 무늬

는 일치하지만, 색상에 있어서 비만 여성은 계절과 상관없이 어두운 색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형적 차이를 보였다.

3) 선호 스타일

직업별 선호하는 바지 스타일은 <표 6>과 같다. 판매·영업직, 자영업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바지(51.2%)를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모든 직종에서 세미

정장바지(31.7%)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김현아, 천종숙, 2004) 결과에서 20대 여성이 주로 착용하는 바지 아이템은 청바지, 정장바지, 면바지 순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젊은 여성들은 청바지를 선호하지만, 본 연구는 20~30대로 학생과 주부를 제외한 직업 종사자가 전체 69.5%로 사회활동이나 직업상 의복을 갖추어 입을 경우를 고려하면 세미 정장바지의 착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업별 선호 스타일의 유의값도 0.05 수준으로 차이를 보여 직업에 따른 바지 스타일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선호 실루엣

실루엣의 종류는 <그림 13>과 같으며, 전체적으로는 일자형(40.2%)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세미 나팔형(37.8%), 타이트형(17.1%)이었다. 연령별 선호하는 바지 실루엣은 <그림 14>와 같다. 20대는 일자형(56%)을 30대는 세미 나팔형(45.6%)을 가장 선호하였다. 다음으로 20대는 세미 나팔형(20%), 타이트형(20%), 30대는 일자형(33.3%), 타이트형(15.8%)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최진, 도윤희, 2008)에서는 20, 30대가 선호하는 청바지 실루엣은 부츠 컷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은 일자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바지에 한정된 것이라 본 연구와 선호 실루엣의 차이를 보이지만, 일자형에 대해서도 선호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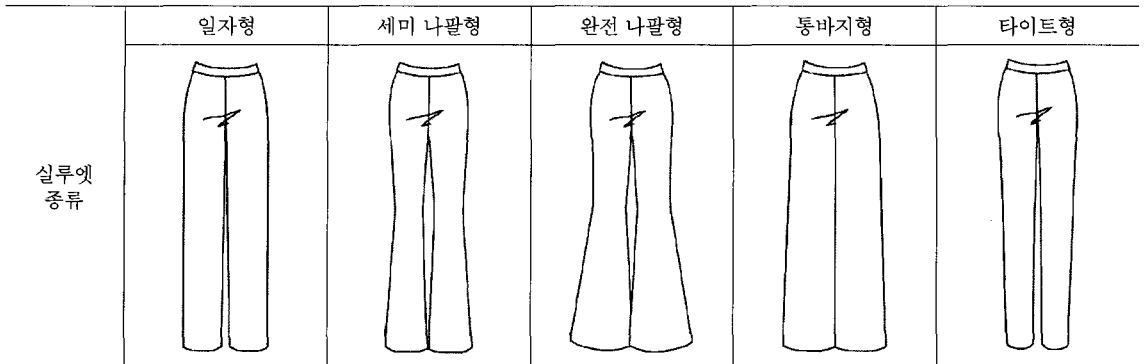
반면, 20, 30대 모두 완전 나팔형이나 통바지형은 거의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만 여성의 대부분은 자신의 개성과 유행에 따라 의복을 착용하기를 원하지만, 실제 착용하는 의복은 체형의 단점을 커버하는 스타일이므로 지나치게 바지통이 크거나 작아 체형의 결점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표 6> 직업별 바지 선호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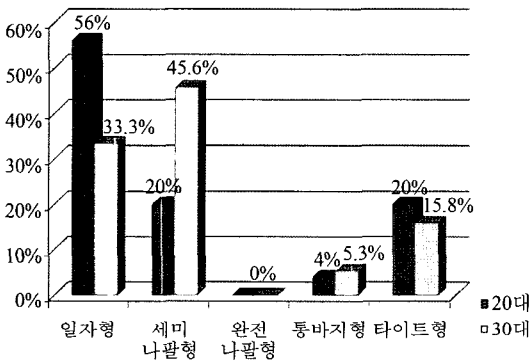
(단위: 명(%))

선호 스타일 \ 직업	학 생	판매 영업직	생산직	사무 관리직	자영업	전문직	주 부	전 체
청바지	4(80.0)	0(0)	2(50.0)	13(59.1)	0(0)	10(52.6)	13(65.0)	42(51.2)
기본 면바지	0(0)	0(0)	1(25.0)	4(18.2)	2(40.0)	0(0)	4(20.0)	11(13.4)
세미 정장바지	1(20.0)	7(100.0)	1(25.0)	4(18.2)	3(60.0)	8(42.1)	2(10.0)	26(31.7)
트레이닝 바지	0(0)	0(0)	0(0)	1(4.5)	0(0)	1(5.3)	1(5.0)	3(3.7)
전 체	5(100.0)	7(100.0)	4(100.0)	22(100.0)	5(100.0)	19(100.0)	20(100.0)	82(100.0)
χ^2	33.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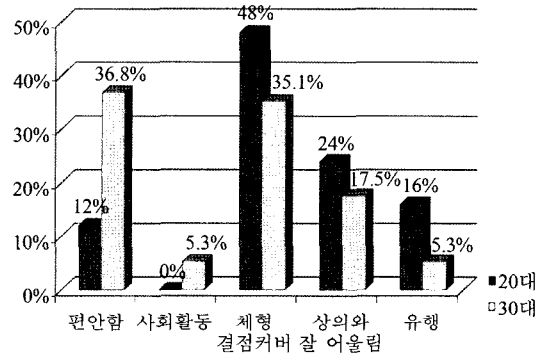
* $p \leq .05$



<그림 13> 바지 실루엣의 종류



<그림 14> 연령별 선호 실루엣



<그림 15> 연령별 실루엣 선호 이유

응답한 실루엣의 선호 이유는 <그림 15>와 같다. 20대는 체형결점커버(48%), 상의와 잘 어울려서(24%), 유행(16%) 때문이고, 30대는 편안함(36.8%), 체형결점커버(35.1%), 상의와 잘 어울려서(17.5%)였다. 따라서 20대는 편안함보다 체형커버나 유행에 민감한 반면, 30대는 편안함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연령층이더라도 20, 30대 간의 차이를 보였다.

5) 선호 허리선

연령별 선호하는 바지 허리선의 위치는 <표 7>과 같다. 허리선은 벨트를 포함한 바지 착용시 허리선이며, 가장 선호하는 허리선은 허리둘레선에서 4cm 내린 허리선으로 20대(44%), 30대(45.6%) 모두 선호하였다. 다음은 허리둘레선에서 8cm 내린 허리선을 20대(32%), 30대(35.1%), 12cm 내린 허리선은 20대(20%), 허리둘레선 수준은 30대(12.3%)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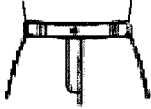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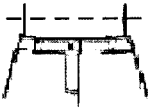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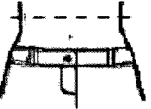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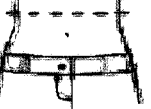
선행연구(최진, 도윤희, 2008) 결과에서 20대는 짧은 밑위길이로 바디라인을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선호하는 결과와 차이를 보였고, 김지영, 이정순(2005)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허리선 위치와 벨트 폭의 시각적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에서는 벨트 폭 3.2cm에 허리둘레선에서 4cm 내린 허리선의 위치가 허리는 가늘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허리선이라 하였다. 따라서 비만 여성은 젊은 연령층에게 유행인 아주 낮은 허리선은 선호하지 않고, 바지 착용시 편안함과 자신의 체형을 고려하여 허리둘레선에서 4cm 내린 위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6) 선호 바지 길이

연령별 선호하는 바지 길이는 <표 8>과 같다. 20대는 신발신고 바닥에 닿을 듯한 길이(36%), 발목 길이(36%)를 동일하게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맨발상태의 발끝까지의 길이(20%)를 선호하였다. 30대는 신발신







<표 7> 연령별 선호 허리선

(단위: 명(%))

선호 허리선	허리둘레선 수준	허리둘레선에서 4cm 내린 허리선	허리둘레선에서 8cm 내린 허리선	허리둘레선에서 12cm 내린 허리선	전 체
					
20대	1(4.0)	11(44.0)	8(32.0)	5(20.0)	25(100.0)
30대	7(12.3)	26(45.6)	20(35.1)	4(7.0)	57(100.0)
전 체	8(9.8)	37(45.1)	28(34.1)	9(11.0)	82(100.0)

<표 8> 연령별 선호 바지 길이

(단위: 명(%))

선호 바지 길이	7부 길이	9부 길이	발목 길이	맨발상태의 발끝까지 길이	신발신고 바닥에 닿을 정도의 길이	신발신고 바닥에 끌릴 정도의 길이	전 체
							
20대	0(0)	1(4.0)	9(36.0)	5(20.0)	9(36.0)	1(4.0)	25(100.0)
30대	2(3.5)	2(3.5)	17(29.8)	15(26.3)	18(31.6)	3(5.3)	57(100.0)
전 체	2(2.4)	3(3.7)	26(31.7)	20(24.4)	27(32.9)	4(4.9)	82(100.0)

고 바닥에 닿을 듯한 길이(31.6%), 발목 길이(29.8%), 맨발상태의 발끝까지의 길이(26.3%) 순으로 선호하였다. 따라서 20, 30대 모두 신발신고 바닥에 닿을 듯한 길이를 선호하여 연령별 차이는 거의 없으며, 설문조사 시기가 여름으로 계절적 영향에 의해 20대의 발목 길이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유행에 민감하고, 의복에 관심이 많은 젊은 비만 여성을 위해 디자인 요소를 이용하여 신체적 결점을 보완하면서 외관과 맞춤새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바지 개발을 위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30대 비만 여성의 바지 착용실태 및 선호 디자인을 조사하여 연령별, 직종별 비교·분석을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문제점

과 선호하는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바지 착용실태 결과, 80.5%가 바지를 즐겨 착용하고, 19.5%가 스커트를 선호하였다. 바지 착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20, 30대 모두 활동적이어서 주로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20대는 착용시 압박감 때문이며, 30대는 체형을 커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2. 연령별 바지 착용시 불편한 부위로 20대는 허벅지, 배, 엉덩이가 동일하게 불편하고, 다음으로 바지 길이였다. 30대는 허벅지, 밑위, 배, 엉덩이, 허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를 기준으로 바지를 선택하였을 때 허벅지부위, 밑위부위의 맞춤새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3. 바지를 새로 구입하는 이유로 디자인이 좋아서(30.5%), 허벅지 안쪽·엉덩이부위가 닳아서(20.7%)

새로 구입하였다. 젊은 비만 여성은 허벅지나 엉덩이 부위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바지 착용시 마찰이 심해 쉽게 닳는 불편함을 겪으며, 착용시 불편한 부위와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직업별 선호하는 바지 소재는 판매·영업직, 자영업 종사자를 제외하고 데님/스판 혼용이 가장 높고, 다음은 먼/스판 혼용으로 특히 판매·영업직, 자영업 종사자가 선호하였으며, 이는 의복을 갖춰 입어야 되는 직종은 데님 소재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호 이유는 스판이 혼용된 바지 소재가 착용시 편안하고 활동적이며, 체형커버 때문이었다. 직업별 선호 소재의 유의값도 0.05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다.

5. 직업별 선호하는 바지 스타일은 판매·영업직, 자영업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바지를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모든 직종에서 세미 정장바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여성의 대부분은 청바지를 선호하지만, 학생과 주부를 제외한 직업 종사자(69.5%)가 많아 사회활동이나 직업상 세미 정장바지의 착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6. 연령별 선호 실루엣으로 20대는 일자형, 30대는 세미 나팔형을 가장 선호하였다. 다음으로 20대는 세미 나팔형, 30대는 일자형을 선호하는 반면, 완전 나팔형이나 통바지는 거의 선호하지 않았다. 선호하는 이유로 20대는 편안함보다 체형커버나 유행에 민감한 반면, 30대는 편안함을 중요시하여 젊은 연령층이 더라도 20, 30대 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20, 30대의 젊은 비만 여성들이 자신의 개성이나 유행에 따라 의복을 착용하기를 원하지만 실제 착용하는 의복은 체형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와 활동적이고 편안한 바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젊은 비만 여성을 위한 선호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외관과 맞춤새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바지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20, 30대 비만 여성의 조사대상자와 중도비만인에 비해 고도비만인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한계점이다. 또한 거주지역이 제한적이므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양원. (2001). 우리나라 대학생의 기성복 맞춤새 정도와 불만족 실태. *한국생활과학회지*, 10(1), 93-100.
- 김지영, 이정순. (2005). 베이직 팬츠의 허리선 위치와 라운드 벨트 폭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 *패션비즈니스*, 9(5), 37-50.
- 김희숙, 나미희. (2002). 슬랙스용 소재에 대한 대학생의 선호도 조사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1(4), 381-389.
- 김현아, 천종숙. (2004). 20대 여성의 기성복 바지 맞춤새와 하반신 체형 인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2(4), 638-647.
- 김후자, 김정남. (2003). 질적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계명간호과학회지*, 5(1), 1-21.
- ‘비만’ 똥보 한국 대책 만든다. (2009, 9. 6). *매일경제*. 자료 검색일 2009, 9. 8, 자료출처 <http://www.news.mk.co.kr>
- 석해정, 김인숙. (2003a). 성인 여성의 연령대별 기성복 치수 선택 실태조사-구호형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8), 63-77.
- 석해정, 김인숙. (2003b). 성인 여성의 연령 비만도에 따른 기성복 맞춤새 선호 경향조사. *대한가정학회지*, 41(9), 17-29.
- 이미숙, 서미아. (2008). 의류 생산업체의 신축성 소재 바지 설계에 관한 실태조사. *복식문화연구*, 16(4), 609-618.
- 이진희. (2001). 성인 여성의 기성복 구매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0 (4), 357-363.
- 이진희. (2002). 성인 여성의 체형에 따른 기성복 적합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2), 189-197.
- 이진희, 최혜선. (1998). 성인 비만 여성의 체간부 체형연구. *복식*, 38(5), 279-288.
- 임지영. (2008). 40·50대 중년 여성의 기성복 구매 및 치수 만족도 조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0(3), 335-341.
- Size Korea. (2004).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이즈 코리아*. 자료검색일 2009, 7. 18, 자료출처 <http://www.sizekorea.kats.go.kr>
- 최영순. (2000). *Plus-size 소비자의 의복행동에 따른 one-to-one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진, 도윤희. (2008). 부츠 컷 청바지 착용실태 및 맞춤새에 관한 연구-20-30대 성인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2(2), 271-283.
- 하희정. (2001). *Plus-size 여성의 연령별 신체특성과 의류치수 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